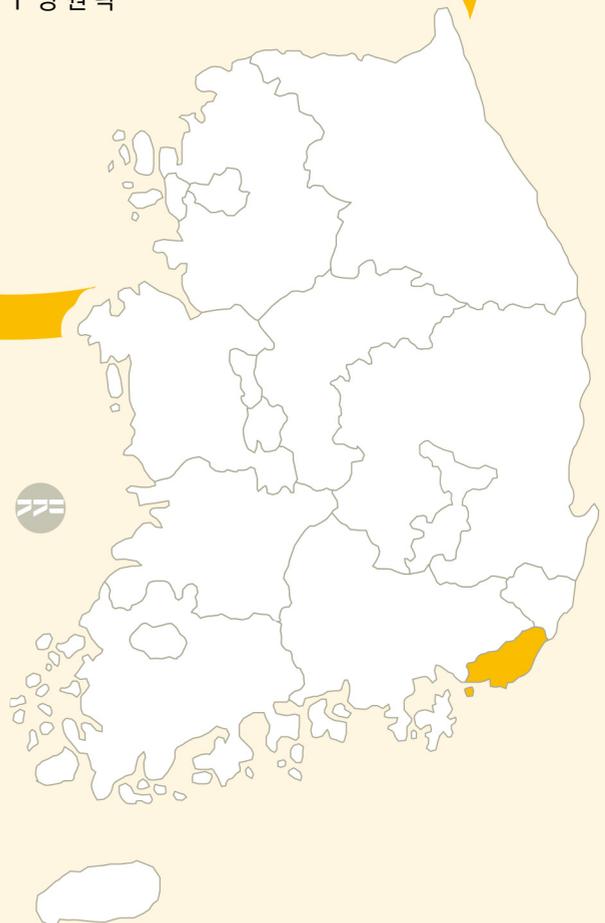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부산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여효성 | 양원탁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부산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연구진

여효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원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01. 연구 배경	4
	02. 연구 범위	6
II	부산의 고령화 및 고령친화 산업 현황	
	01. 부산시 고령화 현황	7
	02. 부산시 고령친화 산업 현황	14
	03. 소결	17
III	해외 고령친화 산업 현황	
	01. 유럽의 실버 이코노미	19
	02. 싱가포르의 고령친화 산업	22
	03. 소결	28
IV	결론 및 시사점	30
	참고문헌	33
	부록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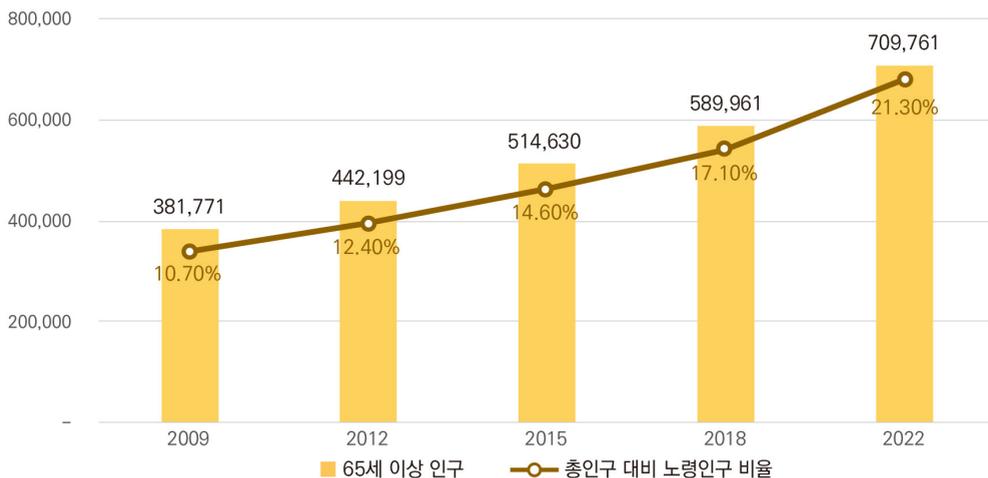
서론

1. 연구 배경

□ 부산시 고령인구 추이

- 국내에서 부산은 7대 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
 - 2022년 말 현재 부산시 총인구는 332만 276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연령인 고령자는 70만 9,761명으로 총인구의 21.3%가 고령자에 해당함
 - 일반적으로 총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미 2021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 부산시 고령인구 증가추세는 204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2년 70.9만 명인 부산시 고령인구는 2045년 1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부산시는 고령인구 급증으로 2050년 고령인구 비율이 4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그림 1 ▶ 부산시 고령인구 추이



출처 : 부산광역시(2022.12), 인구정책 브리프

□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친화산업 시장 확대

- 고령인구 증가추세는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 겪는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으나, 국내의 경우 고령인구 증가추세가 가파른 점은 대응이 필요함
 - 가령, 201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의 수는 9억 100만에서 14억으로 56% 증가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노인 인구는 2015년, 거의 21억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 전 세계적으로 인류는 이전 세대들 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되면서, 노화가 사회적 핸디캡이나 소외 요인이 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음¹⁾
- 노화는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소외 받지 않고 건강한 상태에서 발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
- 노화가 사회적 핸디캡이나 소외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인에 대한 의료, 영양, 돌봄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관련 의료, 건강관리 지원산업의 시장수요 확대를 의미함

□ 실버 이코노미의 등장 및 대응 필요성

- 고령친화산업의 수요자가 신중년(베이비붐)세대로 진입하면서 연령별 맞춤 新 산업창출 및 디지털 전환(DX) 기반 헬스케어 방식의 다변화 필요
 - 실버 이코노미는 “장애가 없이 기대 수명을 향상시키거나 의존적인 노인과 간병인을 일상적으로 도울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로 정의됨
 - 특히 노인을 위한 구조, 개인 서비스, 가사 지원, 주택, 통신, 운송, 안전, 레저, 위생, 여행, 상호 보험, 공제 기관 및 보험 회사 등이 포함됨
- 실버 이코노미는 노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버 이코노미에는 주택 관리, 건강, 주택, 개인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음

1) “우리는 가능한 한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로 바뀌었고 젊은 노인들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살기를 희망”, 프레데릭 세리에르(Frédéric Serrière) 인용

- 실버 이코노미 등장과 부산광역시의 연령별 인구 구성 변화를 반영하여 고령친화도시에 부합하는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내수시장 확대 및 국제화 시대에 맞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 고령층의 수요에 맞는 의료, 요양, 돌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범위

- 부산지역의 고령화 현황
 - 부산광역시의 현재와 미래의 인구구조와 세대별 특성을 전국과 서울시와의 인구피라미드 비교를 바탕으로 파악함
 -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가구 일반 사항, 질병 및 건강상태, 노후준비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고령친화산업의 수요 특성을 파악함
- 부산지역 고령친화산업 현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용품 제조업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산지역 고령친화산업 사업체의 특성을 파악함
- 해외의 고령친화산업 특성
 - 유럽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외 실버 이코노미의 시장 특성과 주요 기업의 비즈니스 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베이비붐세대 이전과 이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고령친화산업 발전방향
 - 부산시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해외의 고령친화산업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부산시의 고령친화산업 발전 방향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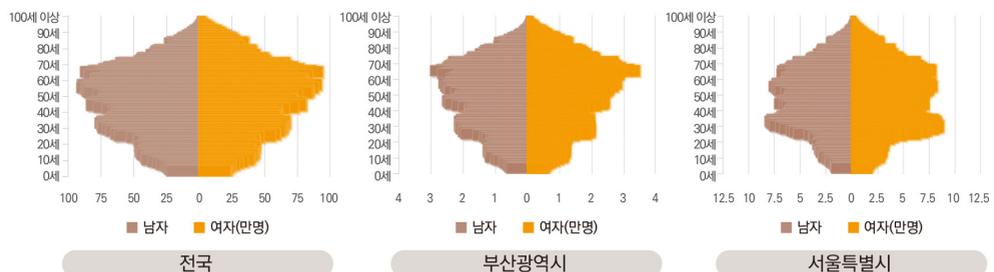
부산의 고령화 및 고령친화 산업 현황

1. 부산시 고령화 현황

□ 부산시 인구 피라미드

- 부산은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임
 - 부산의 고령층 인구 비중은 2020(18.7%)에서 2025년(24.7%), 2030년(30.1%)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부산의 인구는 전국과 서울과 비교하여 청장년층의 비중이 적은 특성을 보임
 -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연령층은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된 50~70대임
 - 부산의 인구 피라미드는 전국의 경우보다 청장년층의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서울과의 비교에서 확연히 나타남
 - 서울은 2023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30대의 연령층이 가장 높은 연령층으로 나타나 인구 고령화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수준임
 - 반대로 부산의 경우 유소년, 청장년층의 유출로 인구피라미드 하단의 폭이 좁은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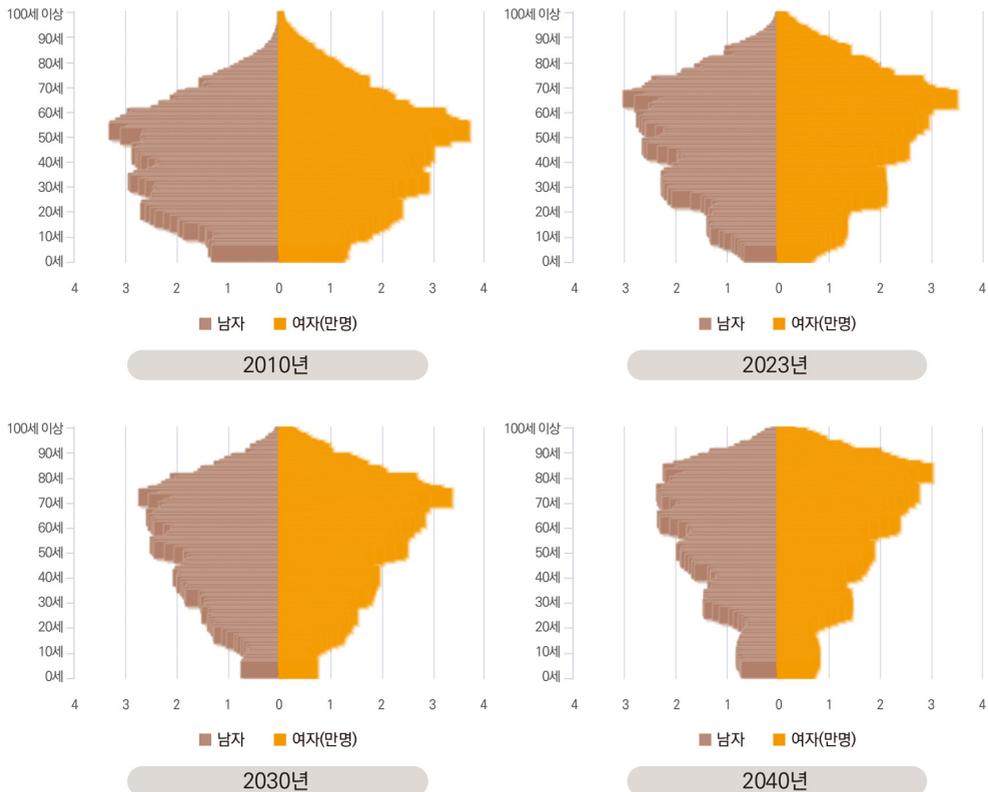
◀ 그림 2 ▶ 시도 인구피라미드 비교(2023년)



자료 : 통계청(2021.12), 장래인구 추계(2020~2070)

- 부산은 2010년까지 에코세대의 인구 유출은 덜 심각했으나 2023년 들어 부산시의 20대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 2010년 기준으로 부산의 인구피라미드는 현재 시점의 전국의 인구피라미드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20~30대 남성인구의 비중이 50대 다음으로 높았음
 - 2010년 기준 20대 연령층(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의 인구 유출은 덜 심각했으나 2023년 들어 부산시의 20대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부산의 20대 인구가 감소한 것은 에코세대의 30대 진입과 20대 인구의 순유출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임
- 현 추세로 부산은 2030년 이후 인구의 대다수가 50대 이상으로 전망되며 머지않아 5060대 중장년층이 7080대 노인층을 부양하고 간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음

◀ 그림 3 ▶ 부산시 연도별 인구 추계 피라미드



자료 : 통계청(2021.12), 장래인구 추계(2020~2070)

□ 부산시 베이비부머의 인구 규모

- 부산시 세대별 인구 규모 및 성비를 <표 1>에서 제시하며, 2020년 기준 부산시의 총인구는 3,391,946으로 집계됨
- 이중 6.25 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1955년부터 1963년 출생자인 베이비붐 세대는 536,895명이며, 이들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는 613,879로 나타남
 - 베이비부머와 에코세대가 차지하는 인구 규모는 각각 15.8%, 18.1%임
 - 만 70세가 되는 54년 이전 출생자 수는 599,822명이며, 이들의 인구 비중은 17.7%에 달함
- 따라서 에코세대, 베이비부머, 54년 이전 출생자 수의 인구 비중은 51.6%에 달해 부산시 인구의 과반에 달함
- 한편 총인구의 성비는 96.0명인데 반해 54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76.4명까지 떨어져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의 숫자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음

◀ 표 1 ▶ 부산시 세대별 인구 규모 및 성비

(단위 : 명, 백분율, 시점 : 2020년 기준)

세대별	전체		남	여	성비
	(명)	(구성비)			
총인구	3,391,946	100.0%	1,661,000	1,730,946	96.0
에코세대 ²⁾	613,879	18.1%	314,069	299,810	104.8
베이비부머 ³⁾	536,895	15.8%	255,388	281,507	90.7
54년 이전 출생자	599,822	17.7%	259,834	339,988	76.4

자료 : 부산광역시(2022.1), 부산광역시 베이비부머 통계

- 부산광역시 베이비부머 통계에 따르면 부산시 총인구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9.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비율은 2040년 37.1%로 상승함
-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베이비부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 62.1%, 2040년 49.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2) 에코세대: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로 1979~1992년생으로 정의

3) 6.25 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1955년부터 1963년 출생자를 지칭

- 2040년 노인인구 중 베이비부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5%p 감소하나 이는 베이비부머의 자연 감소와 함께 노인인구로 새롭게 진입하는 연령층이 증가함을 시사함

◀ 표 2 ▶ 부산시 노인인구 비율(추계)

(단위 : 명, 백분율)

세대별	항목	2030	2040
총 인구	인구 (명)	3,113,235	2,887,377
65세 이상 노인인구	인구 (명)	911,068	1,070,994
	구성비 (%)	29.3	37.1
노인인구 중 베이비부머	인구 (명)	566,193	531,308
	구성비 (%)	62.1	49.6

자료 : 부산광역시(2022.1), 부산광역시 베이비부머 통계

□ 베이비붐 세대의 질병 및 건강

- 노인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표 3>은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을 부산시 전체와 구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부산시 전체 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163,884원임
- 반면 에코세대의 진료비는 76,116원, 베이비부머의 진료비는 210,871원, 54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455,290원으로 나타남
- 젊은 세대의 경우 부산시 전체 평균 진료비의 절반 이하의 진료비를 지출하는 반면, 베이비부머는 에코세대의 약 3배, 54년 이전 고령자의 경우 베이비부머의 약 2배 이상의 의료비 지출을 나타냄
- 진료비 지출이 건강보험료와 개인 의료비 지출로 나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고령층의 의료비 증가는 공적 부조시스템 뿐만 아니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표 3 ▶ 부산시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

(단위 : 원, 시점: 2020년)

구군별	가입자 전체 인구	에코세대	베이비부머	54년 이전 출생자
부산시 계 ⁴⁾	163,884	76,116	210,871	455,290
중구	194,372	75,851	219,575	467,907
서구	192,234	79,348	220,210	474,264
동구	195,552	77,487	232,538	462,049
영도구	220,442	82,408	247,180	510,414
부산진구	166,727	73,382	218,992	464,728
동래구	157,132	77,166	204,073	434,497
남구	167,737	76,303	214,247	456,038
북구	157,575	77,464	207,794	447,049
해운대구	153,073	76,827	196,869	452,166
사하구	167,481	78,627	214,983	459,842
금정구	164,742	72,524	199,414	444,007
강서구	126,090	73,746	198,255	441,527
연제구	162,179	76,220	208,350	444,616
수영구	167,579	73,089	202,891	448,247
사상구	168,278	77,211	220,998	465,090
기장군	140,831	76,102	201,733	433,653

자료 : 부산광역시(2022.1), 부산광역시 베이비부머 통계

- 베이비부머가 치료받는 주요 질환으로는 고혈압, 당뇨, 신경계 질환, 간질환, 정신 및 행동 장애, 악성 신생물 및 갑상선 장애가 있으며, 이중 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은 만성신부전증(857천 원), 악성신생물(481천 원), 호흡기결핵(314천 원) 순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가 많으며 이들 질환자에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 관리와 운동 등의 꾸준한 관리가 중요함
 - 그 밖에 주요 사망원인으로 지목되는 암 등 악성신생물 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방안이 필요함

4) 진료비는 보험자 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의 합계이며, 약국포함, 한의분류를 포함한 값이며,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 실적을 나타냄

◀ 표 4 ▶ 베이비 부머 주요 만성질환 진료

(단위 : 명, 원)

구분	베이비부머	
	진료인원	진료비(월)
전체	415,664	110,848
고혈압	123,406	47,059
당뇨병	64,189	71,268
정신 및 행동장애	38,339	73,485
호흡기 결핵	527	314,790
심장질환	27,790	157,927
대뇌혈관질환	17,077	251,844
신경계질환	45,641	72,273
악성신생물	30,580	481,144
감상선장애	30,119	26,204
간질환	34,155	56,398
만성신부전증	3,841	857,353

출처 : 건강보험공단(2021), 건강보험통계연보.

□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 국내의 국민연금은 1988년 이후 도입이 되었으며, 도입 당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 가입이 아니었음. 따라서 공적연금에 가입된 가입자 수를 <표 5>에서 제시하고 고령층의 노후 대비 정도를 제시하고자 함
- 부산시 전체 베이비부머 인구인 536,895명 가운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수급 중인 사람은 304,210명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 중 약 56.7%만 공적연금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공적연금에서 소외된 인원의 경우 노인빈곤과 같은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표 5 ▶ 부산시 베이비붐 세대의 공적연금 가입자 수

가입자별	전체		
	가입자 수(명)	가입률(%)	
연금가입자 합계	소계	304,210	100.0
국민연금	소계	277,568	91.2
	직장 가입자	67,573	22.2
	지역 가입자	53,709	17.7
	임의가입자	4,402	1.4
	임의계속가입자	29,876	9.8
	수급자	122,008	40.1
사학연금	소계	5,667	1.9
	가입자	2,946	1.0
	수급자	2,721	0.9
공무원연금	소계	20,975	6.9
	가입자	5,921	1.9
	수급자	15,054	4.9

자료 : 부산광역시(2022.1), 부산광역시 베이비부머 통계

-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베이비부머는 79.5%이며 노후생활자금의 재원은 국민연금(63.8%), 기타 공적연금(7.5%), 퇴직금(3.5%), 개인연금(10.8%), 저축성 보험(10.9%), 기타 부동산 운용 및 주식펀드 채권 등(3.5%)으로 조사됨
 -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54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57.8%, 에코세대는 84%로 조사되어 54년 이생 출생자의 노후대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부산시 고령친화산업 현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은 1,018개이며, 업종별로는 의사소통 보조기기 제조업 362개, 일상생활용품 제조업 321개, 개인건강·의료용품 제조업 212개, 주거설비용품 제조업 123개로 나타남
 - <부록 표 1> 고령친화 제조·서비스업 분류체계에서는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의 소분류 및 세부품목, KSIC기준 관련 업종을 제시하고 있음
 - 고령친화 용품 제조업은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돌봄,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거주 환경적 특성을 배려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됨
- 부산에 소재하는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체는 약 88개로 사로 조사되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를 나타냄
 - 부산의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체는 서울(19.9%), 경기(24.0%)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나 대구(8.0%), 인천(4.3%), 경남(4.8%)에 비해서는 높은 비중임
- 부산에 소재한 제조업체 중 500억 이상 매출을 보이거나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는 없으며, 종사자 5인 미만의 사업체 51개, 5~10인 미만 사업체 21개, 10~20인 미만 사업체 9개, 20~50인 미만 사업체 6개가 소재하고 있음
 -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영세하며 제품개발, 사업다각화에 한계를 노출해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고령친화용품 제조업 사업체 기업형태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가 401개, 회사 법인이 610개, 회사의 법인이 7개를 차지함
 - 매출액 500억 이상 규모의 업체는 모두 회사법인의 기업형태를 나타내었으며, 개인기업의 47.9%, 법인기업의 51.3%는 매출액 5억 원 미만이었음(<표 7> 고령친화용품 제조업 사업체 기업형태)

◀ 표 6 ▶ 고령친화용품 제조업 사업체 지역분포

구분	사례 수 (개)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전체	소계	1,018	19.9	8.7	8.0	4.3	3.1	5.7	1.4	1.0	24.0	3.5	2.3	2.4	2.8	4.3	3.2	4.8	0.6
업종별	개인건강· 의료용품 제조업	212	20.5	7.9	4.9	1.2	2.5	2.9	3.1	0.0	28.6	5.0	2.3	5.0	3.4	5.5	3.7	3.5	0.0
	일상생활 용품 제조업	321	14.5	10.0	12.5	4.9	4.1	5.0	0.5	0.9	19.8	3.7	2.0	2.3	2.7	4.9	4.6	7.6	0.0
	주거설비 용품 제조업	123	9.4	8.4	7.5	1.1	1.1	2.2	0.0	1.1	50.7	1.1	1.9	1.1	4.3	2.2	1.6	5.4	1.1
	의사소통 보조기기 제조업	362	27.8	8.1	5.8	6.8	3.4	9.1	1.7	1.7	16.1	3.4	2.7	1.4	2.0	3.7	2.4	2.7	1.4
기업 형태별	개인사업체	401	12.7	12.2	11.1	5.9	3.1	6.1	2.9	1.1	18.8	2.4	1.0	1.3	3.1	7.1	3.8	6.9	0.6
	회사 법인	610	24.4	6.5	6.0	3.1	3.2	5.3	0.4	1.0	27.7	4.3	3.2	3.1	2.7	2.2	2.9	3.4	0.6
	회사외 법인	7	37.4	0.0	0.0	21.7	0.0	21.7	0.0	0.0	0.0	0.0	0.0	0.0	0.0	19.3	0.0	0.0	0.0
매출액 규모별	5억 원 미만	645	18.6	9.2	8.2	5.5	4.3	7.8	2.0	1.4	17.6	3.7	2.2	1.8	3.1	5.5	3.3	5.0	0.8
	5억 원~ 10억 원 미만	103	19.6	7.3	8.1	1.2	1.2	1.3	1.2	1.4	33.6	3.6	0.0	1.4	3.9	2.8	8.1	4.1	1.3
	10억 원~ 50억 원 미만	200	21.4	9.7	7.8	3.7	1.4	2.6	0.0	0.0	35.3	2.0	2.7	4.5	1.4	2.0	0.7	4.8	0.0
	50억 원~ 500억 원 미만	62	30.6	3.2	6.5	0.0	0.0	1.6	0.0	0.0	38.7	4.8	4.8	0.0	3.2	1.6	3.2	1.6	0.0
	500억 원 이상	7	0.0	0.0	0.0	0.0	0.0	0.0	0.0	0.0	28.6	14.3	14.3	28.6	0.0	0.0	0.0	14.3	0.0
종사자 규모별	5명 미만	579	16.0	8.9	8.9	5.2	4.6	6.8	2.0	1.4	18.7	3.2	2.2	1.8	3.5	6.7	4.2	5.4	0.6
	5명~10명 미만	219	24.2	9.7	5.3	4.2	1.8	5.8	1.1	1.1	25.6	4.1	1.7	3.7	2.4	1.2	1.8	5.1	1.2
	10명~20명 미만	118	23.8	7.8	7.9	2.1	0.0	4.4	0.0	0.0	40.6	2.2	2.3	2.1	1.1	0.0	2.4	3.4	0.0
	20명~50명 미만	67	27.3	10.0	7.6	3.3	2.0	0.0	0.0	0.0	33.2	3.7	3.0	1.9	1.5	3.4	1.5	1.5	0.0
	50명 이상	35	28.6	0.0	9.5	0.0	0.0	2.9	0.0	0.0	30.4	8.6	5.7	5.7	2.9	0.0	2.9	2.9	0.0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1), 「고령친화용품 제조업 실태조사」

◀ 표 7 ▶ 고령친화용품 제조업 사업체 기업형태

구분		사례 수 (개)	개인사업체 (%)	회사 법인 (%)	회사의 법인 (%)
전체	소계	1,018	39.4	59.9	0.7
업종별	개인건강·의료용품 제조업	212	43.7	55.1	1.2
	일상생활용품 제조업	321	51.2	47.9	0.9
	주거설비용품 제조업	123	40.9	59.1	0.0
	의사소통 보조기기 제조업	362	26.0	73.7	0.3
기업 형태별	개인사업체	401	100.0	0.0	0.0
	회사 법인	610	0.0	100.0	0.0
	회사의 법인	7	0.0	0.0	100.0
매출액 규모별	5억 원 미만	645	47.9	51.3	0.9
	5억 원~10억 원 미만	103	43.4	56.6	0.0
	10억 원~50억 원 미만	200	23.7	75.6	0.6
	50억 원~500억 원 미만	62	0.0	100.0	0.0
	500억 원 이상	7	0.0	100.0	0.0
종사자 규모별	5명 미만	579	52.5	46.8	0.7
	5명~10명 미만	219	29.7	69.6	0.7
	10명~20명 미만	118	20.6	78.4	1.0
	20명~50명 미만	67	12.0	88.0	0.0
	50명 이상	35	0.0	100.0	0.0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1), 「고령친화용품 제조업 실태조사」

◀ 표 8 ▶ 고령친화용품 수출액

구분		사례 수 (개)	수출액 없음 (%)	5억 원 미만 (%)	5~10 억 원 미만 (%)	10~50 억 원 미만 (%)	50~500 억 원 미만 (%)	500억 원 이상 (%)	평균 수출액 (백만 원)	수출액 합계 (백만 원)
전체	소계	1,018	90.7	9.3	0.0	0.0	0.0	0.0	1,832	174,094
업종별	개인건강·의료용품 제조업	212	79.2	20.8	0.0	0.0	0.0	0.0	2,662	117,398
	일상생활용품 제조업	321	91.8	8.2	0.0	0.0	0.0	0.0	883	23,362
	주거설비용품 제조업	123	84.9	15.1	0.0	0.0	0.0	0.0	1,495	27,815
	의사소통 보조기기 제조업	362	98.4	1.6	0.0	0.0	0.0	0.0	938	5,520

	사례 수 (개)	수출액 없음 (%)	5억 원 미만 (%)	5~10 억 원 미만 (%)	10~50 억 원 미만 (%)	50~500 억 원 미만 (%)	500억 원 이상 (%)	평균 수출액 (백만 원)	수출액 합계 (백만 원)
	5억 원 미만	645	96.5	3.5	0.0	0.0	0.0	155	3,499
	5억 원~10억 원 미만	103	93.3	6.7	0.0	0.0	0.0	140	968
매출액 규모별	10억 원~50억 원 미만	200	82.2	17.8	0.0	0.0	0.0	712	25,317
	50억 원~500억 원 미만	62	59.7	40.3	0.0	0.0	0.0	2,503	62,582
	500억 원 이상	7	28.6	71.4	0.0	0.0	0.0	16,346	81,728
종사자 규모별	5명 미만	579	96.8	3.2	0.0	0.0	0.0	44	805
	5명~10명 미만	219	90.4	9.6	0.0	0.0	0.0	458	9,655
	10명~20명 미만	118	81.3	18.7	0.0	0.0	0.0	592	13,013
	20명~50명 미만	67	72.1	27.9	0.0	0.0	0.0	2,238	41,846
	50명 이상	35	57.0	43.0	0.0	0.0	0.0	7,252	108,777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1), 「고령친화용품 제조업 실태조사」

3. 소결

- 부산시는 2010년까지 에코세대의 인구 유출은 덜 심각했으나 2020년대 들어 20대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부산의 20대 인구가 감소한 것은 에코세대의 30대 진입과 20대 인구의 순유출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임
- 현재의 추세로 가면 2030년 이후 인구의 대다수가 50대 이상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머지않아 노노(老老) 부양이 보편화될 것임
- 한편 부산시 전체 베이비부머 인구인 536,895명 가운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수급 중인 사람은 약 5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빈곤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음

- 반면 1인당 월평균 진료비를 비교해 본 결과 베이비부머는 에코세대의 약 3배, 54년 이전 고령자의 경우 베이비부머의 약 2배 이상의 의료비 지출을 나타내어 고령층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음을 나타냄
- 진료비 지출이 건강보험료와 개인 의료비 지출로 나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고령층의 의료비 증가는 고령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부산에 소재하는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체는 약 88개 사로 조사되었으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임
- 또한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영세하며 제품개발, 사업다각화에 한계를 노출해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해외 고령친화 산업 현황

1. 유럽의 실버 이코노미

□ 실버 이코노미(Silver Economy)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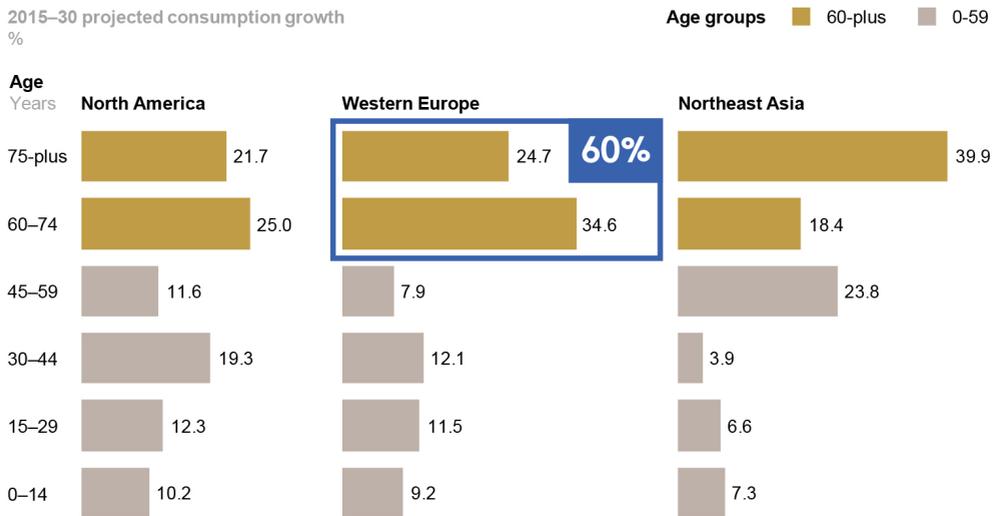
- 실버 이코노미는 시니어 시장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으로 시니어 마켓(senior market)이라고도 하며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다룸
 - 실버 이코노미는 “장애가 없이 기대 수명을 향상시키거나 의존적인 노인과 간병인을 일상적으로 도울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로 정의됨
 - 특히 노인을 위한 구조, 개인 서비스, 가사 지원, 주택, 통신, 운송, 안전, 레저, 위생, 여행, 상호 보험, 공제 기관 및 보험 회사 등이 포함됨
- 201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의 수는 9억 100만에서 14억으로 56% 증가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노인 인구는 2015년, 거의 21억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 실버 이코노미는 노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버 이코노미에는 주택 관리, 건강, 주택, 개인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음
 - 실버 이코노미를 시니어 시장의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실버 이코노미는 종종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역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나,
 - 은퇴자 전용 제품 또한 전 세대가 소비하는 소비의 일부임
- 실버 이코노미는 단순한 고령자에 초점을 두는 실버 경제와 달리 이들의 소비와 생활 패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기업에 성장 가능성을 제시
 - 실버 경제는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에게만 국한되어 시장의 범위가 좁은 반면, 실버 이코노미는 시니어 시장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

- 확장된 정의에서 실버 이코노미 시장은 노인 시니어뿐만 아니라 은퇴한 자율적이고 더 많은 소비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기업에게 성장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

- EU에서는 2016년 실버 이코노미 시장을 920억 유로⁵⁾ 규모로 추정했으며, 2020년에 1,300억 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그림 4 ▶ 유럽의 고령층 소비 전망(2015~2030)

The 60-plus age segment will account for nearly 60 percent of consumption growth in Western Europe and Northeast Asia



SOURCE: McKinsey Global Institute Cityscope; McKinsey Global Institute analysis

출처 : McKinsey&Company(2016), McKinsey Global Insitutue

□ 시니어 시장을 넘어 인구 고령화의 개념

- McKinsey 컨설팅은 2030년까지 소비 증가의 90%가 도시 소비자에 의해 달성되고, 서유럽에서는 2030년까지 60세 이상이 소비 증가의 60%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
 - 모든 기업이 노인 시장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기업이 국민의 중위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세대수가 늘어나는 고령화 추세에 주목하고 있음

5) Global Aging Times(<http://www.globalagingtimes.com/aging/what-is-silver-economy>, 확인일: 2023.4.1.)

- 비즈니스를 시니어에 맞게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대치를 가진 더 많은 세대에 맞게 조정되는 장소를 개발하는 추세임
 - 까르푸, 오상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시니어를 위한 특정 사업 개발에는 관심이 있고, 노인을 포함한 각 연령별 고객의 니즈를 고려하면서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음
- 실버 경제는 종종 고령화 경제로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인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임
 - 시니어 시장은 특정 전용 제품이든 다른 세대도 사용하는 일반 제품이든 상관없이 60세 이상의 전체 소비로 정의됨
- 실버 경제의 발전은 이를 구성하는 기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음
 - 이는 많은 실버 이코노미 기업이 성장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임
 - 가령 노인들은 처음 낙상 후 종종 넘어진 후에만 욕실이나 계단에 안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집을 보수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예방의 부족이 이 부문의 회사에 대한 잠재 시장을 크게 줄이게 됨
- 따라서 프랑스와 같은 라틴 국가의 문화에는 노인 낙상을 위한 예방이 거의 없으며 이것은 가정용 가구 등이 실버 이코노미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을 나타냄
- 프랑스 인구 피라미드에 따르면 향후 6~8년 동안 77세 이상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할 것이며, 이는 주로 제2차 세계 대전 중 출산 부족으로 인한 것임
 - 1946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서구권의 베이비 붐 세대라고 부르는 세대의 출산 붐이 일어남
 - 노인인구가 지난 7년 동안 사실상 안정세를 유지했고 앞으로 5~6년 동안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은퇴자를 위한 주택건물의 수가 극도로 적게 됨
- 투자자들은 특히 77세 미만의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임대 주택에 투자를 더 선호하여 결과적으로 77세 이상 고령자와 관련된 시장에 위치한 회사는 상당히 제한된 잠재 수요만을 대상으로 함
 - 이러한 인구 통계로 프랑스의 인해 주택 관리와 같은 실버 경제의 많은 영역은 2022년 이후만 실제 도약하게 될 것임

□ 산업 섹터별 변화

- 인구 고령화는 산업 섹터별로도 구조적 영향을 미치게 됨
 -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은 점차 이동성이 줄어들고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의류 및 운송 소비가 구조적으로 감소하지만 전기 소비, 실내 장비, 보안 솔루션 및 미디어 소비와 같은 다른 부문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 반대로 고령자는 옵션이 더 많은 고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주 갱신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부머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세대라는 사실과 결합되어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와 같은 특정 제품군의 성장을 하락시키는 경향을 가져옴
- 실버 이코노미에 속한 산업 부문은 향후 인구 통계의 진화에 따라 10년,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인구 고령화 및 시니어 시장의 혜택을 받을 것임
 - 2022년 이전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웰빙, 관광 분야의 주목을 받았음
 -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주택 개량, 보안 기술 등 분야도 베이비 붐 세대의 장수 도래와 함께 도약할 것임
- 따라서 매우 단기간에 강력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활동 분야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관광 및 레저, 간병인을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 노인을 위한 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독립형 자동차 등과 같이 운송을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든 산업이 실버 산업의 수혜를 받을 것임

2. 싱가포르의 고령친화 산업

- 세계가 COVID-19 이후 헬스케어 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표면화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노인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이 싹트고 있음

□ 헬스케어 스타트업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헬스케어 스타트업 Tetsuyu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상처의 상태를 측정, 분석 및 모니터링하는 인공 지능(AI) 지원 상처 이미징 앱을 개발함

- CARES4WOUNDS 어플리케이션은 고령의 당뇨병 환자의 족부궤양과 하지 절단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림 5 ▶ 싱가포르의 노인용 즉석식품



자료 : SilverConnect사의 GentleFoods

- SilverConnect라는 회사는 Enterprise Singapore의 Food for Elder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삼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성형 푸레 식품을 전문으로 생산함
 - 트레이드마크인 GentleFoods 메뉴는 바로 먹을 수 있는 생선, 야채 및 닭고기와 같은 항목 위에 파인애플 푸레 타르트와 같은 현지 스낵을 제공
 - 제품의 모양과 맛이 그대로 유지되는 블렌딩 식품을 만들어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노인, 뇌졸중, 암 환자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되돌려주고자 함
- Tetsuyu 및 SilverConnect와 같은 회사는 고령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령친화 시장을 두드리고 있음
 - 실버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이 부문은 젊은 소비자들과는 다른 니즈를 가진 노인들을 위한 모든 경제 활동, 제품 및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포괄
- 헬스케어 관련 제품은 실버 경제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광범위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환경을 제공함

- 헬스케어 관련 제품은 실버 경제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주택, 음식, 레저 및 관광, 운송 등의 광범위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환경을 제공함
-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싱가포르 거주자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될 것임
- 기업체 입장에서 인구 고령화는 인력 감소 문제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고령화 산업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음

□ 아시아 시장과 고령화 사업

- 고령화 사업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산업 연합인 Aging Asia Alliance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고령 인구가 지출하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 측면에서 실버 경제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남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실버 경제 시장은 2025년까지 4조 6,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60세 이상의 노인 6억 명의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베이비부버 노인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교육을 받고 부유하며 기술에 정통하다는 특성
 - 젊은 노인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얻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실버 지출자”를 구애하기 위해 그들의 라이프스타일 열망과 의료 목표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갖춘 기업은 더 높은 성공 가능성을 갖게 될 것임
- 얼굴 인식 및 데이터 분석 분야의 싱가포르 AI 회사인 Longway AI는 St Luke의 노인 요양 센터에서 낙상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솔루션을 설계할 예정임
- 의료 사물 인터넷 전문 스타트업인 EloCare는 스마트 필박스 솔루션으로 투약 규정 준수 및 추적 가능성 문제를 해결
- 기술은 잠재적으로 노인들이 직면하는 많은 일반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기업가가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

□ 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 지원

- 혼자 지내는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의료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조 생활 방식을 제공할 여지가 있음
- 싱가포르의 종합 건축 회사인 FARM은 사고 회랑 및 정원과 같은 공용 공간과 개인 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미래형 양로원을 설계
 - 이 프로젝트는 공동생활 개념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이 모델을 해외로 수출할 계획도 갖고 있음
- 지역 요양원 현장의 베테랑인 Econ Healthcare는 실버 웨이브를 타기 위해 해외로 브랜드를 확장하고 있음
 - EnterpriseSG의 Scale-up SG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이 회사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사립 요양원 운영업체로 해당 지역에 11개의 요양원이 있음
 - 2021년 Econ Healthcare는 중국 충칭에 있는 첫 번째 요양원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양질의 노인 간호 서비스에 대한 도시의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2022년에 충칭에 두 번째 요양원을 열 계획

◀ 그림 6 ▶ 아시아 지역 고령산업 규모



- 노인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이 일하고, 사교하고, 필요할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형태의 생활 방식에 대한 비즈니스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원격 진료, 건강 기술 및 생활 지원 외에도 싱가포르 및 주변 지역의 고령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존재하는 동시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실버 경제의 경쟁은 치열한 편임
-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노인 전용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많은 기업을 통해 이 부문에서 유리한 출발선에 있음
 - 구매력이 높은 시니어 시장이 훨씬 더 커짐에 따라 중국의 수익성 높은 시니어 시장은 많은 해외 경쟁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임
- 싱가포르의 실버 이코노미 시장은 작을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와 중국과 같은 시장으로 확장되기 전에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한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음

□ 유망 고령산업 분야

- 원격의료
 - COVID-19는 노인들 사이의 디지털 서비스 채택에 박차를 가해 원격 의료에 활력을 불어 넣음
 - 진료소에 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의료 예약 후 이동하여 노인 환자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
 -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의약품이 안전하게 배송되도록 국가 표준에 따라 의약품이 대신 배송
 - Alliance Healthcare는 오프라인 클리닉을 넘어 디지털 건강 서비스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임
 - 원격 의료 플랫폼은 의사와의 원격 상담, 원격 진료, 건강 검진 및 만성 질환 관리를 지원하며, 2019년에 Alliance Healthcare는 디지털 건강 플랫폼 Jaga-Me를 인수하여 가정 기반 주문형 모바일 케어를 제공하여 환자를 위한 노인 케어 옵션을 확장
 - 원격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싱가포르의 혁신적인 솔루션은 잠재적으로 해외로 수출을 염두해 두고 있음

- 헬스테크

- 의료는 하이테크로 향해 가고 있으며, AI 및 사물 인터넷이 지원하는 모바일 앱, 웨어러블 장치 또는 스마트 장치가 인기를 얻고 있음
- 소비자와 의료 기관 모두 노인을 위한 더 나은 의료 솔루션을 찾고 모색 중임
-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 23개의 노인 요양 센터를 운영하는 커뮤니티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인 St Luke's Eldercare는 2020년 Enterprise Singapore에서 시작한 최초의 의료 개방형 혁신 챌린지에서 노인 간호의 두 가지 시급한 문제인 노인 간 낙상과 처방된 약물 요법을 준수하지 않는 노인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
- 헬스테크는 만성 질환 관리 및 모니터링에서 낙상 감지, 투약 준수, 격리 감소에 이르기 까지 기업은 노인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노인 영양

- 맛, 질감, 영양 및 준비 용이성이 변경된 식품은 노인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음
- Food for Elders 프로그램은 병원 및 노인 요양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노인 친화적인 영양 제품 개발을 지원

- 생활 지원

- 더 많은 노인들이 독립적이고 존엄하게 늙기를 원함에 따라 지역사회와 통합된 시설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조 생활 개념과 노인 간호의 “제도화된 스타일”에서 벗어나 개선된 요양원 모델에 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음

3. 소결

- 실버 이코노미는 “장애가 없이 기대 수명을 향상시키거나 의존적인 노인과 간병인을 일상적으로 도울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로 정의되며, 노인을 위한 구조, 개인 서비스, 가사 지원, 주택, 통신, 운송, 안전, 레저, 위생, 여행, 상호 보험, 공제 기관 및 보험 회사 등이 포함됨
- 인구 고령화는 산업 섹터별로 구조적 영향을 미치게 됨

-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은 점차 이동성이 줄어들고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의류 및 운송 소비가 구조적으로 감소하지만 전기 소비, 실내 장비, 보안 솔루션 및 미디어 소비와 같은 다른 부문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 반대로 고령자는 옵션이 더 많은 고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주 갱신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매우 단기간에 강력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활동 분야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관광 및 레저, 간병인을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 노인을 위한 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독립형 자동차 등과 같이 운송을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든 산업이 실버 산업의 수혜를 받을 것임
- 노인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이 일하고, 사교하고, 필요할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형태의 생활 방식에 대한 비즈니스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원격 진료, 건강 기술 및 생활 지원 외에도 싱가포르 및 주변 지역의 고령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존재하는 동시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실버 경제의 경쟁은 치열한 편임
- 싱가포르의 실버 이코노미 시장은 작을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와 중국과 같은 시장으로 확장되기 전에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한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음

IV

결론 및 시사점

□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시대의 도래

- 실버 경제는 노인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이용하는 것으로 폭넓게 볼 필요가 있음
- 인구 고령화는 산업 섹터별로 구조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실버 이코노미에 속한 산업 부문은 향후 인구 통계의 진화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 및 시니어 시장의 혜택을 받을 것임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실버 경제 시장은 2025년까지 4조 6,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6억 명의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베이비부머 노인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교육을 받고 부유하며, 기술에 정통하다는 특징이 있음
- AI 및 ICT 기술은 잠재적으로 노인들이 직면하는 많은 일반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기업가가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

□ 유망 고령산업 분야

- 원격의료
 - 진료소에 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의료 예약 후 이동하여 노인 환자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의약품이 안전하게 배송되도록 국가 표준에 따라 의약품을 대신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
- 헬스테크
 - 의료는 하이테크로 향해 가고 있으며, AI 및 사물 인터넷이 지원하는 모바일 앱, 웨어러블 장치 또는 스마트 장치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소비자와 의료 기관 모두 노인을 위한 더 나은 의료 솔루션을 찾고 모색 중임

- 이 중 헬스테크는 만성 질환 관리 및 모니터링에서 낙상 감지, 투약 준수, 노인환자의 격리 감소를 통해 노인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며
- 헬스테크를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노인 영양

- 맛, 질감, 영양 및 준비 용이성이 변경된 식품은 노인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음. 병원 및 노인 요양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노인 친화적인 영양 식단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생활 지원

- 더 많은 노인들이 독립적이고 존엄하게 늙기를 원함에 따라 지역사회와 통합된 시설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조 생활 개념과 노인 간호의 “제도화된 스타일”에서 벗어나 개선된 요양원 모델에 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고려

- 새롭게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건강하게 활동이 가능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특징이 있으며, 고령인구는 앞으로 총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인구계층으로 이들 자원을 활용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65세에서 70세까지 늦춰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령층은 은퇴 이후 연금개시 시점까지 소득 크레바스⁶⁾를 넘길 대안이 필요함
- 고령인구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잡고 있으나 은퇴이후 약 10년간은 돌봄이 크게 필요 없이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활동이 가능한 시기이며, 이들 전기 고령층에게는 은퇴 이전 소득의 일부를 정기적인 소득으로 창출하면서 노동 강도가 낮은 근로를 감당할 수 있음
 - 중소 규모의 기업이 다수 운영하고 있는 부산의 고령친화산업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고령인구의 은퇴 후 일자리로 이들 고령친화 기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음

6) 은퇴 이후 정기적인 소득원이 끊기는 기간을 의미함

- 장기적으로는 총 인구의 44%에 육박할 수 있는 고령자들이 고령친화산업의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을 고려
 - 가령 IT기기의 숙련도가 높은 고령자의 경우 헬스테크의 시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도록 기여할 수 있음
 - 노인 친화적인 영양 식품의 생산과정에서 저강도의 노동을 제공하거나, 국내 및 아시아권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고령 소비자 취향에 맞는 영양 식단 개발을 제안할 수 있음

참고
문헌

- 건강보험공단.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
- 문인혁. (2007). 고령친화용품 표준화 실태조사 및 품목선정 연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 유재성 외. (2011).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병희 & 강기우. (2007.4).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과제.
- 부산광역시. (2022). 부산 인구정책 브리프.
- 부산광역시. (2022). 부산광역시 베이비부머 통계.
- 통계청. (2021. 12). 장래인구추계(2020~207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 고령친화 제조·서비스업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
- Ageing Asia. (2020). 4th Asia Pacific Silver Economy Business Opportunities Report.
- Global Aging Times. <http://www.globalagingtimes.com/aging/what-is-silver-economy> (확인일: 2023.4.1).
- McKinsey & Company. (2016). McKinsey Global Insititue (Urban World: The Global Consumers to Watch).

부록

고령친화산업 세부 산업별 정의⁷⁾

고령친화산업 범위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명시한 정의와 2021년 수행되었던 「고령친화산업 품목분류 정비」를 근간으로 10개 부문 산업을 대상으로 함

- 고령친화 용품 제조업

-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돌봄,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거주 환경적 특성을 배려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 고령친화 의약품 제조업

- 질병을 진단, 치료, 처치 및 경감, 예방을 목적으로 신체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제품 중 노인이 주로 사용하는 것을 생산하는 산업(기구·기계 또는 장치는 용품이나 의료 기기로 분류됨)

- 고령친화 의료기기 제조업

-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거나 저하된 신체구조와 기능을 진단, 경감, 보정하는 목적으로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중 노인이 주로 사용하는 것을 생산하는 산업

- 고령친화 식품 제조업

-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제품 중 노인이 주로 사용하는 것을 생산하는 산업

- 고령친화 화장품 제조업

- 신체 전반의 청결을 유지하고 피부와 모발을 미화하며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제품 중 노인이 주로 사용하는

7)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1), 고령친화 제조·서비스업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

것을 생산하는 산업(화장품은 경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에 한정하며, 인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됨)

- **고령친화 요양 서비스업**

-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심신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간호 및 치료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고령친화 여가 서비스업**

- 노인이 문화적 요소를 체험하거나 심신을 함양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산업 중 노인이 주로 소비하는 것을 제공하는 산업

- **고령친화 주거 서비스업**

- 노인이 주거를 소유·임대하고 거주하는 전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고령친화 급식 서비스업**

- 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인 다수를 대상으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고령친화산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치료·업무·학업을 위해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기관 및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함.

- **고령친화 금융 서비스업**

- 노인이 안정적 소득 기반을 확보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게 하는 금융상품과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부록 표 1 ▶ 고령친화 제조·서비스업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세부 품목	관련 업종(KSIC 기준)
고령 친화용품 제조업	개인건강· 의료용품 제조업	건강측정용품: 혈압계, 혈당측정기 및 혈당측정검사지, 체온계, 기타 건강측정용품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제조업
		호흡기치료용품: 흡기장치, 산소공급기, 기타호흡기 치료용품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제조업
		욕창예방용품: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욕창예방 쿠션 및 패드 등, 자세변환용 용구, 자세보조용구, 기타 욕창예방용품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2011.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14499, 32011.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온열 및 한랭용품: 온열치료기, 한랭치료기, 기타온열·한냉용품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제조업
		자극기: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개인용) 전기자극기, 기타 자극기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제조업
		한방용품: 침·압봉, 온구기, 부항기, 기타 한방용품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제조업
		물리요법용 운동 및 훈련용품: 자전거 운동량측정장치(에르고미터), 유산소 운동용품, 운동기능및 평형유지 훈련기기, 손가락 및 손 훈련기기, 운동 치료용 훈련기기(재활 치료용), 구강 근육훈련기기, 기타 운동·훈련 용품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장비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제조업
	일상생활용품 제조업	이동기기: 지팡이, 일반보행기, 보행차, 보행보조차, 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기기 리프트, 단차해소기, 기타 이동기기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제조업 31999. 산업용 그 외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욕용품: 욕조, 욕조 고정용 손잡이, 목욕리프트, 목욕보조대, 목욕매트, 기타 목욕용품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제조업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배변용품: 이동변기, 간이변기, 소변줄, 수노기, 성인용 기저귀, 기저귀용 고정장치, 자동배변처리기, 기타 배변용품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제조업
주거설비용품 제조업	식사용품: 음식 섭취용구, 식기류, 음식섭취보조장치, 음식섭취 탐침, 식사용 보조도구, 기타식사용품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제조업	
	침구용품: 고정침대, 수동침대, 전동침대, 침대용리프트, 기타 침구용품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안전 손잡이: 안전손잡이 및 지지난간, 파지난간 및 손잡이, 기타 안전손잡이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조립제품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세부 품목	관련 업종(KSIC 기준)	
고령 친화용품 제조업	의사소통보조 기기제조업	의자 및 착석장치: 의자용 리프트, 기타 의자 및 착석장치	29162. 승강기 제조업 320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건축물용 이동장치: 단차극복슬로프, 기타건축물용 이동장치	29162. 승강기 제조업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건축물용 안전장치: 미끄럼 방지용품, 기타건축물용 안전장치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시각용품: 확대용 안경 및 렌즈, 시야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영상 확대용 비디오, 기타 시각용품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제조업	
		청각용품: 보청기, 기타 청각용품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고령친화 의약품 제조업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	중추신경계용약, 말초신경계 용약, 감각기관용약, 알레르기용약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개개의 의약품 기관용		순환계용약 호르몬제(항호르몬제, 호흡기관용약 포함), 소화기관용약 비뇨생식기관, 및 향문용약, 외피용약
	대사성의약품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혈액 및 체액용약, 인공관류용제,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 종양용약		
	항병원 생물성의약품	항생물질제제, 화학료법제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및 관련제품	조제용약, 진단용약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나카틱 (narcotic)	알카로이드 마약(천연), 비알카로이드계 마약		
	고령친화 의료기기 제조업	기구, 기계		호흡보조기, 이학 진료용 기구, 심혈관용 기계기구, 비뇨기과용 기계 기구, 체온 측정용 기구, 혈압검사 또는 맥파검사용 기기, 호흡기능 검사용기기, 검안용 기기, 청력 검사용 기기, 지각 및 신체진단용 기구, 조직 가공기, 의료용 취관 및 체액 유도관, 채혈 또는 수혈 및 생체 검사용기구, 정형 및 기능 회복용 기구,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치과용 엔진, 치과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세부 품목	관련 업종(KSIC 기준)
		브로치, 치과용탐침, 치과용 방습기, 인상 채득 또는 교합용기구, 치과용 중합기, 치과용 주조기, 시력보정용안경, 눈 적용 렌즈, 보청기, 헤르니아 치료용기구, 개인용전기자극기, 의료용 자기 발생기, 이비인후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안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의료용 세포 및 조직 처리 기구	
	의료용품	봉합사 및 결찰사, 정형용품, 인체조직 또는 기능대치품, 부목, 시력표 및 색각검사표, 외과용품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치과 재료	치과 가공용 합금, 치과 주조용 합금, 메탈 세라믹합금, 납착용 합금, 가공용 합금, 직접 수복재료, 심미 치관재료, 의치재료, 의치상 재료, 근관치료재, 치과 접착용 시멘트, 치과용 접착제, 치과용 인상재료, 치과용 왁스, 모형재 및 매몰재, 예방 치과치료, 치과 교정재료, 약안면 성형용재료, 악골 치아 고정장치, 치과용 임플란트시스템, 치과 임플란트 시술기구, 치과용골이식재, 치주 조직재생 유도재, 보철물분리재료, 기타 보철재료, 기타 보존재료, 2등급치과영상전송장치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소프트웨어	신경과학 진료용 소프트웨어, 안과학 진료용소프트웨어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제조업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화학 분석장비, 방사선 측정장비, 혈액성분검사장비, 개인용 체외진단 검사장비, 혈액응고검사장비, 체액 검사장비, 임상검사용 요화학 및 분변 검사장비, 임상화학 검사시약, 혈구검사시약, 혈액응고 검사시약, 내분비계 검사시약, 임상검사용 요화학 및 분변 검사시약, 임상화학검사지, 개인용 임상화학 검사지, 기타 임상화학검사기기, 면역반응 검사장비, 면역관련단백질검사시약, 자가면역질환 검사시약, 감염체 진단면역 검사시약, 약물농도 검사시약, 임상미생물검사장비, 임상미생물 검사시약, 기타 임상미생물 검사기기, 세포 및 조직병리검사장비, 세포 및 조직병리 검사시약, 기타조직병리 검사기기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식식 진단 및 요법 기기제조업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세부 품목	관련 업종(KSIC 기준)
고령친화 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식품류	간식류, 빵류, 떡류, 두부류 및 묵류, 면류, 소스류, 양념 조미료류, 절임류, 육류가공 식품류, 수산가공식품류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1. 김치류 제조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음료류	차류, 커피류, 과·채 음료류, 두유류 및 유제품류, 기타 음료류	10612. 곡물 제분업	
		10613. 곡물 혼합분말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즉석식품류	즉석식품류	10743.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고령친화 화장품 제조업	화장용, 두발용 및방향용 제품	10794.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눈화장품, 기타 화장품, 체취 방지제품, 두발 관리 및 스타일링 제품	10791. 커피 가공업	
고령친화 요양 서비스업	세정용 제품	10792. 차류 가공업	
	인체 세정 제품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고령친화 여가 서비스업	재가요양서비스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문화 예술관람업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20423. 화장품 제조업	
	영화 상영업, 음악 공연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문화 예술관람업	영화 상영업, 음악 공연업	87293.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영화 상영업, 음악 공연업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문화 예술관람업	영화 상영업, 음악 공연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상영업, 음악 공연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세부 품목	관련 업종(KSIC 기준)
고령친화 여가 서비스업	스포츠업	스포츠 관람업, 스포츠 활동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141. 영화관 운영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관광업	여행업, 숙박업	여행업, 숙박업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1133. 수영장 운영업 91134. 볼링장 운영업 91135. 당구장 운영업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55101. 호텔업 55102. 여관업 55103. 휴양 콘도 운영업 55104. 민박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75210. 여행사업 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90290.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58123.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취미 오락활동업	독서활동업, 오락활동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세부 품목	관련 업종(KSIC 기준)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기분전환 활동업	디지털 온라인 콘텐츠감상업, 음반 및 음악감상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4762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0222. 유선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고령친화 주거 서비스업	양로시설	-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노인공동 생활가정	-	87139.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노인복지주택	-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7139.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고령친화 급식 서비스업	사회복지시설	-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7292. 종합복지관 운영업
	공공기관	-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7292. 종합복지관 운영업 86902. 유사 의료업 96993.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기타 집단급식소	-	86902. 유사 의료업 96993.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고령친화 금융 서비스업	퇴직연금	-	65303. 연금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연금저축	-	65303. 연금업 65110. 생명보험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주택연금	-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1), 고령친화 제조·서비스업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